

# 궁금했어요



**대자가 비신자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교리적으로 조당에 해당하는지요? 알쏭달쏭해서 여쭙어 봅니다.**

결혼에 있어서 신앙은 뒷전이고 다른 조건들을 우선하는 세태를 보며 사제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결혼을 성사혼이라 하는데요. 성사혼은 신랑 신부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거행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쉽게 설명해서 두 남녀가 사제 앞에서 교회의 양식에 입각하여 혼인을 해야만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의도임을 이해하세요.

조당(阻擋)이란 혼배성사와 관련된 말로써 방해, 지장, 장애 등을 뜻하는 한자어인데 교회가 인정하는 결혼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한 쪽만 신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면혼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식장에서의 결혼식을 올렸을지라도 교회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거로 판단합니다. 성사혼이나 관면혼이 아닐 경우에는 혼인의 상태가 아니기에 다른 성사 생활, 즉 성체를 영하거나 고해성사를 할 수 없는 조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에 사회혼을 한 이후 세례를 받을 시에는 혼배성사를 따로 거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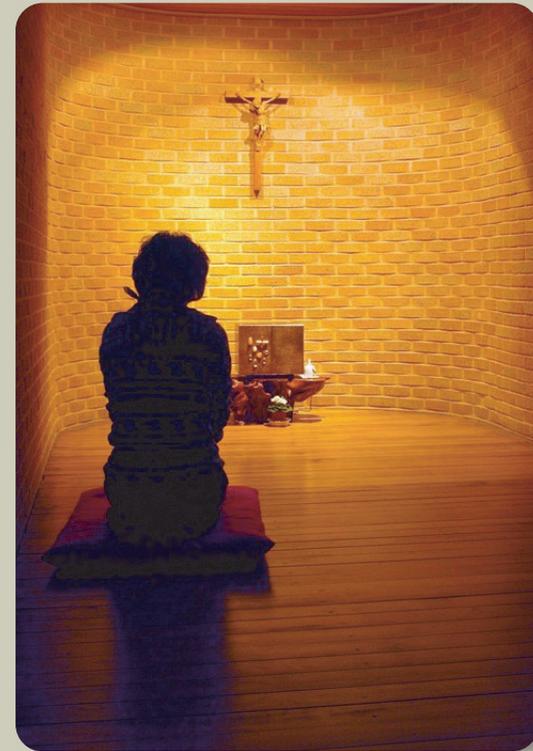
대자분은 현재 조당 상태이니 빠른 시일 내에 관면 혼배를 받도록 이끌어 주고 도와 주세요. 계속 굳은 믿음으로 지혜를 가르치는 훌륭한 대부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곤 소곤 아하 그런거군요』 P88, 장재봉 신부 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5 | 3 | 제65호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 회개의 초대 |

(집회서 17, 25-32)

###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24장 “은혜로운 회개의 때”  
1, 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모임을 축복해 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집회서 17장 25절에서 32절을  
읽어주십시오.
-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분께서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서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 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  
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인간에게 온갖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아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태양보다 밝으랴? 그러나 태양도 어두워진다.  
살과 피로 된 인간도 악을 꺾는다.  
그분께서는 저 높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지만  
모든 인간은 먼지와 재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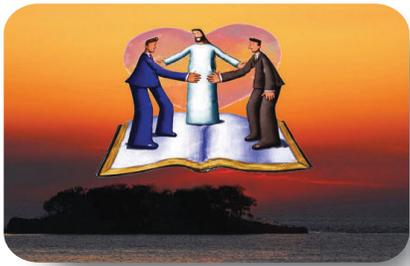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일상에서 관계가 어긋났을 때 내 탓으로 돌림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회두라는 말처럼 머리를 돌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첫째, 회개의 삶은 하느님을 제1순위에 두고 사는 삶의 자세이다. 이는 돈과 명예와 건강보다 더 소

중한 생명을 주관하는 하느님을 하루의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아침, 저녁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한 주간은 주일미사로서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

둘째, 회개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는데서 시작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았기에 남과 같이 되려 하거나,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좋은 점은 칭찬하고 격려하게 된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자기존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따스함이다.

셋째, 회개한 자의 모습은 남에게 나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 곧 나의 부족함이나 잘못, 성격적 불완전함으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타인이 나에게

게 자신의 잘못과 과오와 불완전함을 내 탓으로 돌려도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회개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이루시기에 가능하다. 주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518장 “선한 사람 아흔아홉”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본당 설립 40주년-기쁨과 은총의 해를 맞이 하며

-구역분과장 김순애 (베로니카)-

2015년은 고현 본당이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성서적으로 40이라는 숫자는 중대한 어떤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본당에서는 2015년 사목지침을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신앙인, 사명에 충실한 신앙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기도, 공부, 활동”의 실천사항을 제시하여 전 신자들이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5구역 3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역분과 활동으로는 신앙공동체 일원으로 2014년부터 매월 첫 주를 ‘차 없는 날’로 정해 본당 전체 식사 나눔과 민속놀이 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며, 본당을 화합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매주 한 구역씩 성전 청소와 매월 식사 나눔에 구역별 봉사를 하고 있으며, 쉬는 교우와 전입세대 돌보기 등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4구역은 6개 반으로, 주로 젊은 층과 중년층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 4개 반과 장년과 노년층으로 대부분 농업을 생계로 하는 2개 반으로 구성되었지만 본당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구역원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문동 1반은 본당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싱싱한 떡거리를 제공해 주며, 매월 첫 주 ‘차 없는 날’ 민속놀이 경기에 많은 반원들이 참여하여 타구역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답니다. 문동 2반은 소공동체 모임을 매월 정기적으로 충실히 하며 반원들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 주변 이웃을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방문을 통해 위로와 기도로 함께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꾸준히 하다 보니 처음에는 복음나누기와 기도를 힘들어 하던 반원들도 마침기도에서는 짧게라도 본인의 바램을 자유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정할 때는 한 달 동안 실천 할 일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이 정해지면 반원 중 한사람이 그 말씀을 코팅해 주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